



## 초국가주의로 이루어 가는 이 시대의 모자이크

지난 15년간 한국과 전 세계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사역단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국제이주자선교포럼(IFMM)이 오는 6월 26일 제16회를 맞이한다. 본 포럼은 2008년에 출범된 이래로, 매년 이주노동자·난민·이주배경 자녀·MZ세대 등을 주제로 아우르며 다양한 인종과 세대의 이주민을 포용하고 이들 대상의 사역 방안을 논의해 왔다.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배경에 대해 박찬식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2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인구 유지선인 2.1명의 37%에 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한 해 출생아 수는 1972년에 1백만 명, 2002년에 50만 명, 2022년에 25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70%, 50년 후에는 93%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의 모습을 띠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지탱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연금제도의 유지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저출생 대책 예산은 약 280조 원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 낭비이자 시간 낭비다.

조만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회적 각성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를 소망하지만, 한국사회가 다시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즈음에, 현재로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에서 양질의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차대한 전환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여러 종류의 갈등과 대립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급갈등, 이념의 좌우갈등으로

구성원 간의 분열과 인식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차원이 다른 갈등까지 더해졌다. 스위스 극작가 막스 프리슈는 그의 희곡에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는 구절을 남겼다. 이러한 시점에 교회는 이주민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포럼이 외국인과의 갈등을 초월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초석을 다지기를 소망한다.

이제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부처별로 표면적인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이민정책의 가장 큰 전제는 고급인력으로 유입된(Brain Drain) 소수의 이주민 한정이었으나, 이제는 대규모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경관리, 체류관리, 국적법, 사회통합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만이 교육 대

상이었지만, 이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력만 이용하거나 대학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식의 이기적인 정책에서 나아가, 이주민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가 세워지도록 정책을 그려나가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에 반영해 나가고 이민정책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이루어 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대적 과제이다.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국제이주자선교포럼이 바람직한 이민정책 수립과 작금의 현실에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길 바라며, 디아스포라신문은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의 이야기와 최근 이주민 사역 소식을 6월호에 담았다.

# 카렌교회의 강함으로 한국교회의 약함이 채워지기를...

GMS 파송 선교사  
플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아신대학교 (ACTS) 연구교수  
태국카렌침례총회 -  
실로암신학교 교수



오영철 선교사

글

"한국교회가 연약해진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전 5년 만에 한국교회를 방문한 한 선교사가 남긴 고백이다. 그가 방문한 10여 곳의 한국교회 가운데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교회는 단 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의 고백대로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다. 물론 그가 두 달 동안 방문한 교회가 한국교회의 전체 모습은 아니다. 여전히 부흥하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은 한국교회의 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그가 두 달 동안 방문한 한국교회는 "교인의 감소, 교인의 노령화, 헌금 감소, 주일학교 운영의 어려움, 예배 활력 약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사실 이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최근 10여 년간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계속 언급되는 요소들이다.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각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사명이 없거나 게을러서도 아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가 가능한 것은 헌신된 분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최근 방문한 카렌족 교회는 한국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첫째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주일 낮 예배에 약 60명이 참석하였는데, 최근 방문해 보니 100명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교인들의 연령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이다. 셋째, 헌금이 꾸준히 증가하여 한 해 헌금이 약 100만 바트(약 3만 불) 정도이다. 성도들은 가난한 형편이지만 웬만한 태국교회보다 훨씬 헌금을 많이 한다. 넷째, 주일학교 학생은 20여 명이며 대부분 초등학생 이하이다. 다섯째, 전통적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영적 다이내믹으로 가득하다.

이 교회는 태국 치앙마이 시내 근처 '산사이'라는 곳에 위치한 '디베리교회'로, 카렌 이주민 디아스포라 교회이다. 성도들은 대부분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태국 사회에서 주변인들이다. 교인들 대다수가 태국 시민권이 없고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난하거나 차별받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동적인 믿음은 결코 연약하지 않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만 해도 은혜가 밀려온다.

한국 선교사들도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는 시점에, 디베리교회야말로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상황과 문화는 달라도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과연 그 교회에 가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필자가 생각건대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다. 한국교회의 약화를 보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낙담하는 동시에, 선교지에 한해서

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캄보디아의 이교육 선교사는 2020년 프놈펜 포럼에서 이를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선교사로 파송 받으면 갑작스러운 신분상승을 경험한 사람처럼 정체성의 혼돈을 가진다. ... 선교사로 파송 받으면 자신의 신분이 달라졌기에 선교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갖춰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고 하던 된다고 생각한다."

선교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가 되었다. 이 시기에 정치, 경제를 비롯한 교회의 팔복할 만한 성장은 한국선교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성공을 경험한 일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은 선진국 배경의 한국교회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아무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비관적이어도 이를 위해 선교지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선교지의 문제를 놓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교회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벧후1:4)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나 카렌교회나 이런 점에서 동일하다. 한국교회는 더 소중하고 카렌교회는 덜 소중하지 않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동일하게 소중하다. 또한 교회는 상호 의존하여야 한다. 카렌교회의 약함은 한국교회의 강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약함도 카렌교회의 강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시는 이유는 때로 가르치고, 돌보고, 돕기 위해서이다. 이와 반대일 수도 있다. 선교지 교회에서 배우고, 돌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디베리교회에서 선교사가 가르칠 일은 보이지 않는다. 도울 일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배울 것은 많아 보인다. 그들의 부흥, 젊은 세대의 열심, 헌신, 역동적인 예배 등의 모습이다.

1980년까지 급성장하던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40년 만에 고속 성장에서 심각한 쇠락을 경험하고 있다. 카렌 침례교회는 1828년에 복음이 전파된 후 1854년부터 자립하는 지역 공동체가 되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선교사역을 전반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 심지어 미얀마의 내전 중에도 단기 선교를 보내고 있다. 그들 안에 강인한 생명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훨씬 크다. 한국교회와 달리 여전히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디베리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다시 확인한다.

울산 아프간 특별기여자 소식 6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해밀학교' 7면

에세이 <외교관의 딸 이야기> 마리 수아조 작가 인터뷰 11면

To convene a catalytic gathering and conversation among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diaspora missions of Asians worldwide and in Asia.

## A CONSULTATION ON DIASPORA MISSIONS IN AND BEYOND ASIA

Theme : 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  
Date : August 1 (Tuesday 2:00PM) - August 5 (Saturday 2:00PM), 2023.  
Venue : Shalom Hotel, Jeju Island, South Korea

Objectives:

- Learn and discuss about mission by, through and among Asian diasporas Worldwide.
- Assess the impact of migration to, within and from Asia.
- Explore new horizons for diaspora missions in the contexts of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migrants, internal migrants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s.
- Create a forum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network and collaborate.
- Compile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on into a future publication.

Sponsored by: GDN GLOBAL DIASPORA NETWORK TORCH TRINITY TRINITY KOREAN DIASPORA NETWORK

Save The Date  
August 1 - August 5, 2023  
Await Registration Details  
Visit [www.global-diaspora.com](http://www.global-diaspora.com) for more details

#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이주민 선교를 시작하기까지



**다니엘 목사**  
Rev. Appiakorang Daniel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복음과 관련된 일에 계속 헌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가나의 오순절교회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수도인 아크라에서 대학에 다니며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회 모임에서 하나님은 제게 "나는 네가 집을 멀리 떠나 이주하여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졸업 후 2001년 고향인 아킴오다로 돌아와 은행원으로 일했고, 그때만 해도 지역교회에서 청년 지도자로 사역하면서 해외로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김미수 한국 선교사님의 후원을 받아 기적처럼 길이 열려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미수 선교사님의 연결로 가게 된 봉일천장로교회에는 어네스트 선교사님이 국제 예배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선교 사역을 위해 라이베리아로 가시면서 2010년부터 제가 국제 예배 담당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역과 동시에 학업을 이어 나가며 2016년에 나사렛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 과정을 마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 두 아

들을 두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에는 KAICAM 소속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민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선교입니다. 이주노동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기독교인도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예배와 친교를 나누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회심하고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한데, 이는 마치 사도바울이 선교 여행 중 방문하였던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늘 찾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이주민 성도와 이주민 선교 대상자를 위한 예배 처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세계선교를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 기회가 풍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주민 선교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봉일천장로교회가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에는 지역을 선교지로 여기고 이주민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또 한 곳 있습니다. 문발동에 있는 디자인교회입니다. 저는 두 곳 다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봉일천장로교회 국제부와 디자인교회 국제선교회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라이베리아, 모로코, 아이티, 우간다, 짐바브웨,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케냐 등 출신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일천장로교회의 국제 모임은 약 20명, 디자인교회 국제선교회는 약 80명이 모임이며 100명 이상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

일천장로교회 국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또한 디자인교회 국제선교회는 오후 3시부터 예배를 드리며, 매일 밤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자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정 기도회를 통해 구성원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봉일천장로교회 국제예배당에서 기도회가 있고, 밤 10시에는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Help My Faith, HMF)'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HMF는 기독교인에게 성경으로 도전을 이끌어내고 성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질문을 나누며 개인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파주에서의 사역 경험으로,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아프리카계 이주노동자가 출산할 경우 그 자녀들 상당수가 미등록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는 그들의 비자 자격으로 한국 정부가 관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은 많은 이주민들을 큰 고통에 빠뜨리며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게 만듭니다. 거기다 이주민이 미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미등록으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인도적 체류지위자에게 주어지는 G1비자를 갖고 있다면 아이도 같은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중 한 명이 미등록 체류로 추방되어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단둘이 한국에서 살아갑니다. 저희 부부는 그러한 가정을 많이 보아왔던 경험과 더불어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삶을 위해 사역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에 외국인 자녀를 돌보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이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눅 9:48). 또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강조합니다(막 10:14). 조이하우스는 2016년 3명의 자녀로 시작해 현재 35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가장 큰 도전은 조이하우스의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예배하는 장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장소가 점점 협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조이하우스와 교회 공간이 새롭게 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주시는 무수히 많은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땅끝 선교지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http://www.jvmikorea.org)



# [인터뷰] 로잔 GDN 대표 티비 토마스 박사

##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 하나님을 선교지를 통째로 옮겨주신 것"

디아스포라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아스포라에게 전하고, 변화된 그들이 다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를 계기로 디아스포라를 글로벌 교회의 전략적 선교 영역으로 인식하고, 로잔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GDN: Global Diaspora Network)가 설립되기도 했다. 로잔 GDN은 디아스포라 선교의 촉매 역할로서 디아스포라를 통해, 또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발전시켜 왔다.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호텔살롬제주에서는 '디아스포라 아시아인들과 아시아의 디아스포라들'(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이라는 주제로 로잔 GDN이 주관하는 '제주 디아스포라 컨설테이션'이 열린다. 해외로 떠난 디아스포라 아시아인들과 아시아 대륙을 찾아온 각국 디아스포라들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제주 컨설테이션 준비를 위해 방한한 GDN 대표 티비 토마스(TV Thomas)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번에 나오는 결과물은 2024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의 디아스포라 및 이주민 영역 발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며 디아스포라 및 이주민 선교 지도자들과 실무자, 선교학자, 교육자, 교회 및 선교기관, 선교협의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75세인 토마스 박사는 말레이시

### 오는 8월 1~5일 '제주 디아스포라 컨설테이션' 진행 최대 40여 개국 250여 명 디아스포라 전문가 한자리에 '디아스포라 아시아인들과 아시아의 디아스포라들' 다뤄

아 말라카에서 태어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아시아인이기도 하다. 다음은 티비 토마스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

#### — 오늘날 디아스포라 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전 세계는 지난 50여 년 동안 이주의 큰바람이 일었고, 많은 이주민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3억 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민이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거나 자녀 혹은 스스로의 유학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도 생기고, 종교 탄압이나 문화 전쟁, 최근 발생하는 기후 변화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놓여 이를 피하기 위해 이주하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주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지난 20년간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유학생들이 서구권에만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서는 200개 나라에서 온 16만 2천 명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의 6개 의과대학은 인도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필리핀에는 1만 8천여 명의 인도 유학생이 이미 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유학생이 중국에서도 공부

하며,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공부합니다. 이처럼 상호적 방향에서 동시에 이주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디아스포라 현상의 특징입니다. 이는 계속 성장하는 추세인데, UN은 2030년까지 디아스포라가 3억 5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GDN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GDN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난민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디아스포라 현상을 근거로 많은 지역교회에 디아스포라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도 이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이주민들은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에 있어 효과적인 복음의 대상자들이 됩니다. 이란 사람들은 유럽, 캐나다,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파키스탄 사람들도 해외에서 복음을 듣고 이슬람에서 회심하여, 크리스천으로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항상 움직이면서 복음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주민들에게 다가가면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회답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디아스포라 사역에 참여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주고 깨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위대국제선교회 등이 지역교회나 선교단체들을 격려하고, 지역 내 이주민 사역을 독려하고 교육하는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몽골인, 캄보디아인, 이란인, 네팔인들에게 다가가는 한국 사역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역에 오히려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많이 일어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 — 제주 디아스포라 컨설테이션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많은 40개국에서 250여 명의 참석자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역교회와 여러 선교단체 대표분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15~17개의 논문 수준의 발제문이 발표됩니다. 한 발제문의 발표 시간은 25분에 불과합니다. 대신, 각 그룹은 발제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며, 모든 평가와 자료를 모아 발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발제자는 외국에서 온 수많은 전문가의 글로벌 시각에서 나온 평가를 적용하여 3개월 안에 업그레이드된 글을 완성하고, 거기에 자료를 더 풍성하게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상당히 균형 잡혀 있고 가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발제문들을 모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원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아 책으로 편찬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이 끝나면 적어도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작년 8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컨설팅에서 다른 내용도 곧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GDN이 주관하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인디아스포라네트워크(KDN) 등이 후원하며, 위대국제선교회가 전체 호스트를 맡습니다.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 설립이사장인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환영사, KWMA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가 축사를 전하며,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이 아침예배에서 말씀으로 섬깁니다.

— 이번 컨설팅의 주제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인이 미국, 캐나다에도 있는 것처럼, 아시아인인데 해외로 나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인인데 말레이시아로 오고, 브라질인인데 일본에 오는 등 세계 각국에서 아시아로 와서 유학하고 비즈니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아시아인들과 아시아의 디아스포라들'이라고 주제를 정했지만, 결국 아시아 대륙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이슈를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15~17개의 세부적인 주제에는 어린 아이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전 세계로 팔려 가는 이슈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아시아인들의 IT 기술력을 배경으로 한 이주도 포함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발제하는데 길강목 이주민 정책 박사가 한국 정부의 이주민



▲ 티비 토마스(TV Thomas) 박사는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지하 1층 원형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디아스포라 선교에 상당히 앞서 있다"며 "한국교회가 로잔 GDN과 연합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정책을 다루고, 유윤종 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가 이주민 선교를 통한 환대와 하나님의 형상, 현한나 장신대 교수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결과물은 제4차 로잔대회의 디아스포라, 이주민 영역 발표 내용의 핵심이 될 겁니다."

— 컨설팅에서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기준도 모색한다고 들었습니다.

"큰 나라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도시로 나가는 국내 이주민에게 처음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해외 타 문화권으로 움직이는 이주민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화권 안이지만, 땅이 커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국내 이주민들도 초국가적인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으로 다뤄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 밖으로 나가면서 훨씬 더 개방적, 진취적인 모습으로 기회를 얻고, 처음 가는 동네에도 주저 없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어, 초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국내 이주민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다루려 합니다. 이분들을 아직 디아스포라

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디아스포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초반에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 컨설팅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따라 타문화를 경험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다룹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떠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지만 에티오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디아스포라 이슈도 컨설팅에서 다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번 컨설팅에서는 △전 세계 아시아 디아스포라에 의한, 또 아시아 디아스포라 간의 선교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며 △아시아로의, 아시아 내부 및 아시아로부터의 이주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경제적 이주민, 유학생, 가족 이주민, 국내 이주민 및 강제 이주민의 맥락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의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학자와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하며 △협의 절차로 향후 출판물로 편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 이주민 선교 이슈는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수용하고 께안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주민의 역사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통째로 이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비자와 여권도 필요 없이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선교인 것입니다."

— 한국교회에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디아스포라 선교에 상당히 앞서 있고, 한국교회의 앞선 사역이 정말 귀합니다. 다른 나라는 아직 디아스포라 선교 기관이나 사역 경험 부족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협소한 지역에서만 디아스포라 이슈가 있을 뿐이지, 전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일부 교회가 이주민 사역에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정통 교회가 디아스포라 이주민에게 관심이 없을 때, 거꾸로 디아스포라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에 대거 진출해 영국에 교회도 세우고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15개 교회가 아프리카 이주민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영국 정통 교회는 5천 명 이상이 되지 않는데, 2만 3천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 이주민 성도가 영국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로잔 GDN과 연합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ti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의 국내 이주민선교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교단별 이주민선교 관련 배경과 현황을 게재한다. 7월호는 합선교단이 실린다.

## 1. 국내 이주민 지역선교부 터담기 시기 (2007~2014, 첫 7년)

- 1) 2007년 부산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정노화 선교사 KPM 선교사 허입
- 2) 2005년 고신 국내 외국인 선교협의회 창립
- 3) 2011년 KPM 국내 외국인 현지 선교부 조직
- 4) 1~2가정 사역 시기(2007~2011)
  - 2007~2011년 정노화 선교사 (현재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대표)
  - 2012년 김복경(영산) 선교사 부부 고신대선교목회대학원 중국부 담당 교수 사역 (현재 고신대 선교목회대학원 중국 M.Div 교수)

- 5) 2~3가정 사역 시기(2012~2014)
  - 2012년 C국 사역하던 강하전, 김현실 선교사 부부 국내 이주민 지역부 재배치 (현재 강하전 선교사는 한남대 중국교회 개척, 중국 유학생 증한통교회 시작)

## 2. 전문영역 실습 시기(2015~2022, 두번째 7년)

- 1) 예술선교, 선교단체 사역, 조선족, 통일선교 사역자들 합류
- 2) 전문 사역 영역과 전략적 거점 도시에 선교사 배치
- 3) 6가정 사역 시기(2015~2018)
  - 2015년 박신호, 김정자 선교사 이주민 대상 문화 예술 사역
  - 2015년 김요한, 강안나 선교사

- 선교단체 리더십 사역 (1999년부터 KPM과 WEC 파송 C국 사역, 2015년 이후 WEC 대표, KWMA 실행위원, 선교한국 파송단체 위원장)
  - 2017년 필리핀 사역하던 서대균, 조현숙 선교사 국내 이주민 지역부 재배치 (진주 이주민 센터 사역, 국내 이주민 선교 안내서 인쇄 및 배부)

- 4) 9가정 사역 시기(2019~2022)
  - 2019년 오성학 선교사 탈북민과 이주민 사역 (1999년부터 몽골과 C국 교단 선교사 사역)
  - 2019년 전정권, 배선숙 선교사 조선족 교회 사역 (2005년부터 C국 사역과 국내 조선족 사역)
  - 2020년 정규호, 윤혜신 선교사 러시아어권과 영어권 사역 (1993년부터

- 카작, 태국 사역, KPM 본부 사역)
  - 2021년 정종기, 김혜숙 선교사 북한 북음화 사역 (현재 통일선교원 원장)
  - 2023년 하광락 목사 포항 이주민 선교센터 사역

## 3. 세 번째 칠 년을 내다보는 국내 이주민 지역부

- 대상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권, 유학생, 다문화가정, 난민 등
  - 교회: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다문화교회 등
  - 지역: 부산, 김해, 인천, 군포, 진영, 창원, 진주, 울산, 포항 등
- 정리 김복경 선교사  
(KPM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전 KPM 훈련원 원장)

# 한국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아프간 친구들

##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섬기는 이명희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



**이명희 선교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선교실 간사

요즘 마○○씨의 아침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아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어 등원 준비를 하느라 아침마다 한바탕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이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 유치원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아이는 잘 적응하여 유치원 가는 것을 재미있어합니다. 처음 아이가 유치원에 가던 날, 엄마와 떨어지기 싫은 아이가 울며 떼를 쓰고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아이는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유치원 버스에 오르고, 엄마인 마○○씨 야말로 아이를 보며 영영 울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에서 한국어를 배워와 집에 오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국어로 곧잘 말하기도 해 엄마를 놀라게 합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생활이 곧 일상이 된 아프간 친구들은 울산에서 어느덧 두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선물처럼 찾아온 아기를 잃어버리는 아

픔을 겪기도 하고, 고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방문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몸에 이상이 생겨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문화차이에서 오는 오해로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적응하던 중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가정도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온라인 쇼핑물에서 물건을 주문하기도 하고 능숙하게 중고마켓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버스로 집과 떨어진 재래시장도 가고 교통카드 환승도 곧잘 합니다. 시장의 야채가게 주인아주머니도, 문구점 사장님도 모두 이웃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주민분들은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줍니다. 아프간 친구들은 더 이상 마을의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이웃집 찰스>라는 한 공영방송에 이들의 생활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장 큰 기쁨은 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아 다소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 대학생활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축구 모임도 매주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축구 유니폼과 축구화를 새로 마련하여 나누어주었습니다. 환한 햇살 아래 유니폼을 입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서 아이들도 저희도 참 행복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축구팀의 유니폼도 제작 중입니다. 곧 그들의 멋진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 가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환대하며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이들에게 닿아 아프간 친구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프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친구 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서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퍼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들의 삶에는 어둠과 어려움, 슬픔과 아픔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랑으로 아프간 친구들을 품는 여러분이 있기에 이들은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꿈꾸어 봅니다. 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되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는지 알 수 있기를…….



#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해밀학교'

강원도 홍천군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있다. 다문화 배경 학생들과 중도입국청소년, 한국 청소년을 모두 수용하는 다문화 대안학교 '해밀학교'이다. 해밀은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란 뜻의 순우리말로,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후에는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해밀학교의 이사장은 국민가수로 잘 알려진 인순이 씨다. 본교는 2013년에 개교하여 2018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현재 기숙형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개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 해밀학교 전경

해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상처를 보듬고,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에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 동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입학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 온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모두 낮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공교육 체계에서 학업을 지속하며 진로를 찾거나 원만한 친구 관계를 쌓기도 어렵다. 현재 해밀학교의 중도입국청소년 학생 비율은 약 30%이다. 이에 학교는 비다문화 학생과 이주배경청소년을 묶어 소모임을 구성하고 각자의 나라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어셈블리'를 운영하며 이중언어 교육, 합창과 악기, 농사 등 비언어 교육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간의 이해와 결속력을 높인다.

해밀학교는 기숙형 학교로 운영되어 교사와 사감의 협력으로 부모의 돌봄 공백도 메울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도 중도입국청소년은 상대

적으로 소외된 영역에 있다. 그러나 해밀학교 개교 10주년에 교장으로 취임한 이경진 교장은 중도입국청소년의 가능성을 본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한국 문화와 언어권에서 자라죠. 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나라와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은 해외에서 태어났기에 본국의 문화 기반 위에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수용하며 다양성을 강화해 갑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빠르고 완벽하게 핸디캡을 해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하고 그에 따라 자기 길을 찾아가는 아이들이었어요."

중학교 과정인 해밀학교에 다니는 초기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의 실마리를 찾은 청소년들은 입학을 거절당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겪으면서도 다문화적 배경을 활용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 사례로 필리핀 출신의 중도입국청소년 영희(가명)가 있다고 이경진 교장은 말한다. "영희는 원래 밝은 성격이었는데 한국어가 어려워서 학교생활을 힘들

어했어요." 그러나 해밀학교에서는 영희에게 한국어 교육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체육·미술·음악·요리 등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영희는 음악과 미술에 흥미를 보였다. 기타 연주를 배우다 오디션을 보기도 했고, 미술 전시회를 열어 그림을 판매하기도 했다. 지금 영희는 무엇을 할까?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애니메이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영희가 다양한 교과목을 접하며 발견한 적성과 목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국어 공부에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중요하게 여긴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특정한 역할을 완수하거나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악기를 다루게끔 교육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 올라 공연하게 한다. 한국말이 어눌해도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성취 경험으로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은 사회적 소수자

로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해밀학교는 한국 내에 네트워크가 부재한 청소년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왜냐하면 부모와 학생 모두 사회적 기반이 없고 정보력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인적 관계망을 통해 진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해밀학교의 김인순 이사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아이들이 세계여행을 다니는 탐험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젊은 탐험가를 초청하는 식으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해밀학교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경진 교장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과 진로교육 등의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 국내 곳곳에 설립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보다 깊이 있는 지원책으로 '진로교육 코디네이터'의 확충을 제안한다. 즉 코디네이터 양성, 양성된 코디네이터와 학생의 연결을 돕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권 내 학교와 중도입국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모두 중도입국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각 지역, 분야에 산재한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기도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경험이 있고 진로에 필요한 정보를 연결하는 역량을 보유한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자원을 연결해 줄 코디네이터가 있다면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부터 정착까지의 과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II)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일시  
2023.6.13화 - 16금

장소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숙소: 인터컨티넨탈 & 홀리데이인 호텔

## 교회가 한국선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참임목사님 100명을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에 초청합니다.

법인이사장	대표회장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최남수 목사 (의정부광명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정감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

**\*10개 트랙별 발제자와 라운드테이블 토의가 있습니다.**

**주제**  
1. 선교와 거룩 (Mission and Holiness)  
2. 세계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의 역할 (Korean mission in World Christianity today)  
3. 선교의 전방 영역 재이해 (Frontiers in Mission)  
4. 실천적 대안 (Best practices)

**초청 규모**  
목회자,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 선교학 교수, 여성, 다음세대, 평신도 리더 등을 균형있게 초청합니다.

**등록 절차**  
① 참가신청서 작성 → ② 초청장 발송 → ③ 참가비 납입 → ④ 등록 확정  
(제한된 숙소와 라운드테이블 전략회의 구성으로 영역별로 균형있는 참여를 위해 초청방식으로 등록이 진행)

**신청**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wma.org

**문의**  
대표 1833-3110 / ncowe@kwma.org  
협동총무 정용구 목사 010-2109-0009

**주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이사장 이규현 목사, 대표회장 주승중 목사

# "하나님의 다민족·다문화 디아스포라 선교 계획은?" (2)

## 안성호 고든대 교수, 2023년 제1차 로잔 선교적 대화서 강의

고든대학교 안성호 선교학 교수(OMF 선교사)는 한국로잔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줌으로 진행한 2023년 제1차 로잔 선교적 대화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이다"라며 디아스포라와 난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도전을 전했다. 본지는 안 교수가 '디아스포라 신학: 흩어진 파종을 받은 공동체'라는 주제로 전한 강의를 두 차례에 나눠 소개한다.

### ◇신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다민족, 다문화 선교

안 교수는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교회, 사마리아교회, 안디옥교회에 나타난 선교적 디아스포라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 15개 언어로 통역하여 예수를 믿게 된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였다. 또 베드로의 설교로 결신한 성도 3,000명 중에는 120명만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 유대인이었고 2,880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며, 다른 성도 5,000명 중에도 1,000명이 히브리 유대인이었고 4,000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이다.

안성호 교수는 "예루살렘교회에는 이스라엘 내에서 출생한 히브리파 유대인과 해외에서 출생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람어를, 헬라파 유대인은 만국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사도로서 목회 사역을 하면 헬라파 유대인인 일곱 집사는 행정사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 "구약과 신약성경, 위그노와 모라비안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난민 사역의 목표는 디아스포라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선교적 공동체 단계까지 되도록 훈련하는 것"

그는 "히브리파 유대인은 단일문화, 단일민족으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으나, 헬라파 유대인은 다문화, 다민족화 되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며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은 편견과 전통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오순절 때 예비하셔서, 이들이 아무 선입견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난민교회, 안디옥 난민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선교(미시오 데이)에 의한 핍박과 환란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흩으시고 난민으로 파종하셨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흩어진 난민들이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였다(행 11:19~21)"며 "구브로, 구레네 등 수많은 교회 중 왜 안디옥이었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항구도시 중 하나로서 수많은 교역이 이뤄지는 복잡한 곳이었고, 시리아 그리스 제국의 수도로서 동방 사람들이 많이 오는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것은 구심력적으로 열방 가운데서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동시에 원심력적으로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션센터로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까지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예루살

렘교회가 받았지만, 이제 무대에 등장하는 라이징 스타는 안디옥교회였다"며 "예루살렘교회는 자문화 선교, 유대인 선교를 했지만, 안디옥교회는 다문화 선교, 다민족 선교를 하여 다민족교회를 번식, 증식시켰다. 이것을 이루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예루살렘교회가 안디옥교회를 잉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다민족, 다문화) 교회를 만드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예루살렘교회가 유대문화적 교회이고 단일민족교회였다면, 안디옥교회는 헬라문화적 가치관으로 헬라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고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교회로, 두 교회가 분리 개척됐다"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교회를 바꾸지 않으셨다. 그것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민족과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다중심적이며 헤드쿼터가 없다"며 "하나님은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으시지만(global, 순례자), 철저하게 한 민족과 문화 가운데 녹아 들어가시는 노예의 하나님으로(local, 노예) '글로벌 갓'(Global God),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이다"고 강조했다.

### ◇디아스포라 난민들에 의해 일어난 종교개혁과 세계선교

안 교수는 또 "실제적인 종교개혁 운

동의 핵심은 위그노"라며 "위그노 난민들이 네덜란드 종교개혁교회와 스코틀랜드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그노들이 프랑스 왕조의 핍박을 받고 네덜란드(75,000~100,000명), 독일(45,000명), 잉글랜드(40,000명), 스위스(22,000명),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등 유럽, 남아프리카, 러시아, 북미, 브라질,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등 중남미까지 이동하는데,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이 네덜란드와 스위스였다"며 "이 난민을 위해 존 칼빈이 종교개혁 운동의 센터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 훈련시켜 재파송시켰다. 그중 한 명이 존 녹스이고, 칼빈의 영향을 받아 에딘버러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위그노 난민이 네덜란드로 가서 종교개혁교회를 세우고, 일부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교개혁의 핵심은 자국어 성경번역과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 운동을 확장시킨 위그노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존 녹스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에딘버러대학에서 공부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오예배 설교목사로서 다민족, 다문화, 다지역 관광객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그는 존 녹스 종교개혁의 중심이 된 세인트 자일스 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1차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교회가 위그노 난민 후예들의 교회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과 벨기에 루벤 복음주의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조사한 결과,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프랑스 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됐다. 안 교수

##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는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난민이 되어 퍼져나가면서 안디옥교회를 세운 것처럼, 종교개혁의 무브먼트를 네덜란드, 스위스 등 전 유럽과 심지어 캐나다, 북미 가운데 퍼뜨렸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모라비안 교인들을 꼽았다. 체코 왕들이 모라비안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자, 독일 헤른후트로 이동한 모라비안 교인들을 진젠도르프가 자립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안 교수는 "이들 안에 선교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자비량 선교사 훈련 학교가 세워지고, 자비량 선교를 꿈꾸는 모라비안 교인들이 네덜란드에 파송돼 모라비안교회가 개척됐다"며 "네덜란드의 발달된 항해 기술로 (모라비안 선교사가) 열방에 퍼져 1732~1768년 사이에 226명의 모라비안 자비량 선교사들이 파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루터교회가 침체하고 화란개혁교회 2~3세들이 영적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라비안들을 세워 글로벌 미션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며 "모라비안 타워에서 이뤄진 25시간 기도체인이 그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미국의 유명한 디아스포라 선교학자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3단계로 '디아스포라를 위한 단계'(Missions to Diaspora), '디아스포라가 현지인과 자국민을 선교하는 단계'(Missions through Diaspora), '디아스포라가 모든 민족을 위해 선교하는 단계'(Mission beyond Diaspora)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구약과 신약성경, 위그노와 모라비안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난민 사역의 목표는 디아스포라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선교적 공동체 단계까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유럽에서

경험한 디아스포라, 난민 사역의 실재를 전했다.

안 교수는 네덜란드의 디아스포라, 난민 교회들의 네트워크인 SKIN에서 1년에 12주 동안 리더들을 위한 신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 리더인 콩고 투치족 난민인 폴 무타마는 12살 때 종족 살상으로 아버지와 누나를 눈앞에서 잃고 유엔의 도움으로 네덜란드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후 무타마는 자신과 같은 난민을 돕기 위해 투치족 교회와 콩고, 부룬디, 르완다에서 온 난민을 위한 국제교회를 개척해 아프리카 난민과 유럽인 사역을 했다. 또 아프리카 선교 컨퍼런스를 여는 등 네덜란드의 아프리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우는 다민족 리더 역할을 하게 됐다. 무타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자기 민족을 섬기기 위해 콩고로 재파송 되어 국제교회, NGO를 세우고 현지 리더 신학교육원을 운영하며, 내전 지역에서 난민사역을 하고 있다. 안 교수는 "디아스포라를 위한(to) 선교가 디아스포라를 통한(through) 선교,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넘어서(beyond) 선교하는 것으로 바뀐 사례로, 제2의 안디옥교회 교인, 제2의 위그노, 제2의 모라비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나님은 안디옥교회를 향한 말씀을 21세기에도 성취해 나가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엔추엔 중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소개했다. 1세 성인공동체는 만다린어, 광둥어 예배를 드리지만, 2세 청년공동체는 네덜란드어, 만다린어, 광둥어, 영어, 독일어, 불어 등을 사용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 자원이었다. 안 교수는 주일예배 설교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주간 디아스포라 신학교육을 열었다. 그는 "감사하게도 하

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르단으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 시리아 난민사역을 하고 있다"며 "최소 5~6개 문화로, 어디가 선교지이고 어디가 후방인지가 없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모두를 위해 모두에 의한(Mission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by everyone for everyone) 선교가 이뤄지는 것이 현대 선교의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한인교회가 파종의 정체성 깨워주는 선교적 교회 되길'

안성호 교수는 "(현재) 많은 디아스포라 난민이 오는 북미와 유럽은 심각한 선교지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영적전쟁이 벌어진다"라며 "이제 어느 곳이나 선교지이며, 이는 곧 어느 교회나 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 73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보냈고, 이 중 기독교인 비율은 45%(350만 명)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파송이 아니라 파종으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선교적 디아스포라로서 한인교회를 전 세계에 흩으신 것"이라며 "한인교회가 파종의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는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에게 파종받은 정체성을 깨워주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안성호 교수는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연약한 민들레 씨가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바람이 멈추는 곳에 떨어지지만, 파종 받은 민들레는 아스팔트를 파고 들어서 꽃을 피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있는 자리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파종의 자리(요 3:8)라며 "풀뿌리처럼 파고 들어가 생명력을 낳아 주

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적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차 로잔 선교적 대화는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최형근 교수의 사회로 김광성 주안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기도,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의 인사, 로잔동아리 연합회 회장 이권식 전도사의 케이프타운 서약서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로잔운동은 복음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운동"이라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처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다"고 말하고 "(2024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음에 합당한 과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회 준비 과정뿐 아니라 복음주의 선교운동, 복음에 합당한 선교적 교회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임이 중요한 원료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 2024 로잔대회'를 앞두고 2023년 제2차 로잔 선교적 대화는 오는 6월 3일 온라인 줌으로, 로잔 신학 교수들의 포럼은 6월 16~17일 제주도 ACTS29 선교훈련원에서 열린다. 714 기도대성회는 7월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약 5천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며, 곧이어 카운트다운 청년대학생 집회가 7월 15~16일 같은 장소에서 약 1만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린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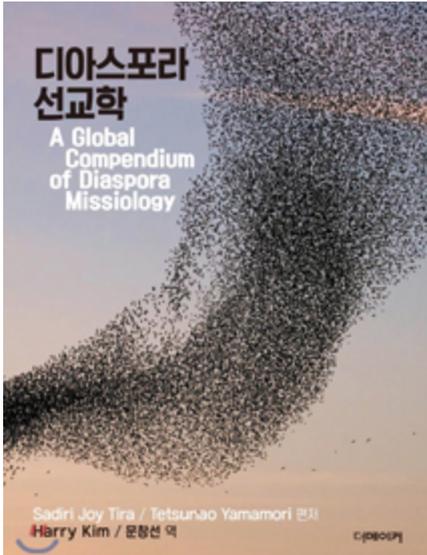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 디아스포라 선교학: 국제 유학생 선교(ISM)



디아스포라 신문은 정기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 14장의 '국제 유학생 선교(International Student Ministries, 이하 ISM)' 내용에 관하여 요약하였다. 14장의 저자인 레이톤 친(Leiton Chinn)과 리사 에스피넬리 친(Lisa Espineli Chinn)은 부부 사역자로서 ISM에 헌신하고 있다. 레이톤 친은 로잔 ISM의 상임고문이며, 리사 에스피넬리 친은 미국 대학생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IVCF)의 미국 디렉터로 14년을 섬겼다.

학계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 갖고 논의를 나눈 것은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로잔 파타야 포럼이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디아스포라와 국제 유학생 선교(ISM) 이슈를 합쳐서 세계교회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유학생 사역 운동의 간헐적 성장이 한 세기간 진행된 후에야 이런 방향 제시가 있었으며, 2007년 로잔 ISM 특별관심위원회 설립과 더불어서 ISM에 관한 방향 제시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어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

운에서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ISM과 관련해 여러 세션이 열렸다.

사전에 의하면 '학계'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말하지만, 디아스포라 선교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해외에서 온 임시 거주자인 중·고등학생까지도 포함한다. 캠퍼스 또는 지역공동체의 교육기관에 속한 외국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학계에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실천하는 '주체'다. 최근 ISM 사역은 캠퍼스에 있는 크리스천 이주민을 무장하여 장래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국제복음주의학생회(IFES)는 유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캠퍼스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에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해 왔다.

1975년 미국 보스턴의 파크스트리트교회에서는 '오늘날 선교의 대 사각지대'란 주제로 유학생 세계선교 콘퍼런스가 열렸다. 콘퍼런스에서는 그동안 교회가 해외출신 학자들과 그들을 통한 세계선교의 거대한 잠재성 및 기회를 놓쳐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 세계 교회, 단체 그리고 성도들을 ISM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며, 기독교 유학생들이 귀국 후 고국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도전하였다.

ISM의 전통적 목표는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있다. 캠퍼스의 수많은 유학생들이 미전도지역 또는 '10/40 창'에서 왔으며, 이들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미전도지역에 장차 영향을 끼칠 잠재성을 갖고 있다. 선교사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나 문화권이라 할 지라도 미래 지도자 육성을 위해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교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배경 출신의 사람들은 오히려 타국에서 기독교와 맞닿을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있다. ISM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귀국 시 보안 문제까지 고려하여서 적절한 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어마어마한 전략적 가치 중 하나는 졸업한 유학생 대부분이 그들의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있다. 캠퍼스와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을 환대한다면 교회는 세계지도층에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지역교회 또는 특정 교단은 캠퍼스 유학생들 대상으로 자원하여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자기 집에 유학생들이 홈스테이로 지내도록 환대해 주고, 가족처럼 그들을 맞이한다. 이러한 선교 방식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동참할 수 있다. 유학생들의 현지어 학습을 도와주고, 문화적 멘토가 되어주는 등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글로벌' 선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전문성 있게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선교학적으로 관련 있는 학생 이동의 또 다른 추세가 있다. 유학 프로그램의 급증으로 ISM의 폭넓은 사역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예 국내 기독교인 학생들을 훈련시켜 선교사로 유학을 보내는 방식이며, 다른 말로 하면 '역 ISM'이다. 기독교 교육기관은 유학 자체를 통합적 선교와 학습의 기회로 선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나라와 캠퍼스를 전략적으로 택하여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문화와 언어를 배워 사역에 종사할 수 있다.

ISM에 참여하는 선교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학생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현지 선교사들은 고국에서 오는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신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유학 파트너십을 개발할 수 있다. 또는 교수진들이 여름방학이나 한 학기 동안 해외에 나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환교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인식하고 ISM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유학생들을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 지역교회는 ISM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① 캠퍼스 근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을 만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② 거주 지역에서 방문 가능한 ISM 단체 목록을 작성해 보자. 만약 단체가 없거나, 우리 교회 또는 단체가 ISM을 시도하기 원한다면 초기에 시작할 만한 단계는 무엇이 있는가? ③ 캠퍼스의 유학생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동참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④ 국내의 ISM 단체 홈페이지 두 곳을 찾아보자. 그리고 유의미한 생각이나 정보를 공유해 보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는 교회

#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용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욱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문탁 박광운 옥치안 이홍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욱,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승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재,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쌍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 [인터뷰] 책 <외교관의 딸 이야기> 마리 수아조 작가

마리 수아조 작가는 필리핀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과 필리핀, 이집트 등 다양한 제3문화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 책 <Tales of a Diplomat's Daughter(외교관의 딸 이야기)>를 독립 출판하였다. 현재는 팟캐스트로도 왕성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리 수아조 작가가 한국을 잠시 방문하였다는 소식에, 본지는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 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외교관의 딸 이야기>는 여러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기록한 자서전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차례 이동하며 살았기에 사귀던 친구들이나 정들었던 집과 작별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또한 내게 부과된 사회적, 문화적 압박도 존재했다. 그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여러 문화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가고 희망과 치유를 얻었는지에 크게 초점을 두었다."

## —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땠나.

"나는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이주 와서 11살까지 지냈다. 이후 다른 나라로 갔다가 18살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세대학교와 햇볼트리니티 대학원에 진학했다.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집처럼 느껴진다. 한국의 것들이 매우 친숙하며 한국이 나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

라고 여긴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가 필리핀으로 이주했을 때 처음으로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나는 필리핀 국적의 사람이지만, 정작 필리핀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며 자랐기에 필리핀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고, 내가 영어와 한국어에 유창한 것과는 다르게 필리핀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치열히 고민하던 시절이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이집트로 가면서 점차 정체성에 관한 확신이 안정적으로 들었다. 타문화권에서 살던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지낼 때는 사람들이 나를 필리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나의 배경을 받아들이면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 — 본인의 경험치로 디아스포라에 대해 설명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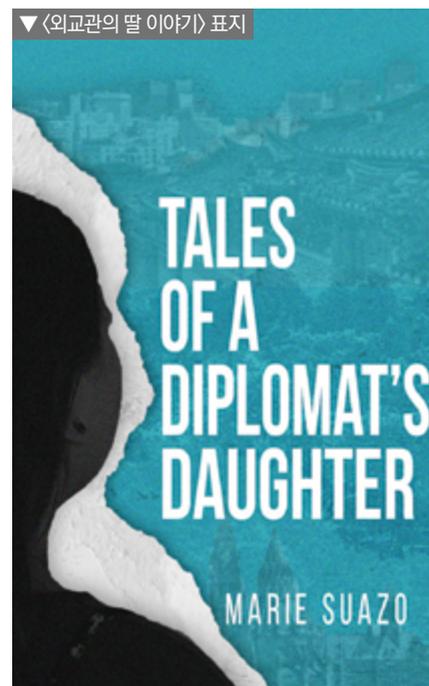
"디아스포라는 타문화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문화 간의 차이를 메울 수도 있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나는 자라면서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름'을 늘 인식하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나누고 가르칠 수 있었다."

## — 장차 하고 싶은 일과 기도제목을 알려달라.

"앞으로도 나의 책에 관해 이야기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제3문화권 아이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 계속해서 책을 써나가고, 경험을 담은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듣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다.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전 세계, 특히 필리핀의 제3문화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동료들 통해 우리 주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길 기도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자기 자신 사이에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인터뷰 내내 디아스포라가 살아낸 거친 생의 흔적과 이를 돌파하여 승리한 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자로서 이주민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모습이었다. 전 세계에 진출한 한인 디아스포라 750여 만 명과 그 안에 속한 자녀들이 마리 수아조 작가처럼 타문화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기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한다.

문창선 발행인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에 끊임없이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쓴 뿌리와 같은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 <Tales of a Diplomat's Daughter> 일부 번역문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stainability**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도전 II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의 4장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도전 II'을 요약하였다. 본고는 2015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디아스포라포럼, GDN, 로잔이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발제된 제3세션 'Toward Strategic Directions'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더불어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아시아적 선교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선교의 전략은 근대 선교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모색되어 왔으나 사실 신약시대부터 예수께서도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예루살렘을 오고 가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택하여 인류 구속의 전략을 치밀하게 계획하신 사실을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전략에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이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과 방법이 곧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훈련 교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카이로스> 4판 5과 선교 전략 부분에 보면, 기독교 조직에서 전략이란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종족에게 어

떻게 다가갈지를 결정하는 총체적 접근을 의미한다.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준 해결(Standard Solution) 전략:** 과거에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둔 경우로, 각 지역에서 약간의 상황화를 거쳐 적용이 가능한 전략이다.

**성령 전략(Being in the way):** 이 전략은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인이 동역할 때 인간의 계획이 필요 없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계획은 때때로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개별적 해결(Unique Solution) 전략:** 가장 좋은 접근법이다. 이 전략은 다양한 종족의 상황과 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전략을 그 상황에 맞추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Peter C. Wagner)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네 가지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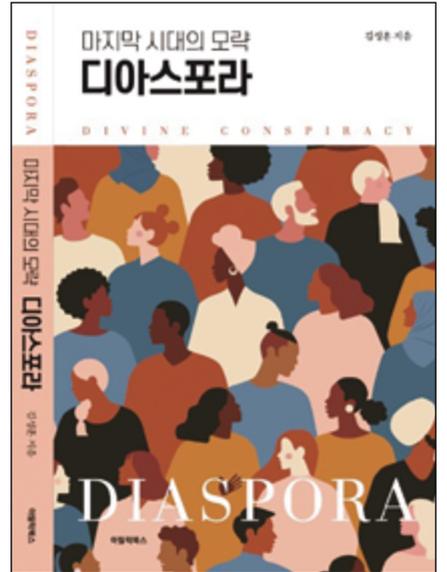
**바른 목표:** 대위임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대위임령의 목적은 '제자 삼기'이고, 방법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선교는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여 많은 경우가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대위임령에는 '가다', '제자 삼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치다'라는 네 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원문 헬라어로 보면 그 중 '제자 삼다'만 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분사로 표현되어 제자 삼는 데 수반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자 삼는 일이

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목표이고 다른 것들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 현지인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제자 양육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가는' 선교를 강조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선교사역의 오류를 오랫동안 범하였다.

**바른 장소와 시기:**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뿌릴 때의 비전, 즉 좋은 땅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장소이다. 기를 때의 비전은 열매에 관한 것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많은 선교사가 높은 수준의 사역을 펼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를 세울 수 없다면 진지하게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눅 13:6~9). 거둘 때의 비전은 거두어야 할 추수를 잃지 않기 위해 추수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적절한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임하는 일도 포함한다. 왕왕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바른 방법:** 제자로 삼는 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용어로 설교하는 것이 제자 삼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열매는 그 종족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혼합 종족을 사역하는 일과 단일 종족을 사역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 효과 면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령을 통한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

**바른 사람들:** 하나님은 열매를 수확하실 때 완전히 무르익게는 하시지만 추수하지는 않으신다. 이 추수는 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하신다. 이 말은 바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바른 사람이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다(눅 24:49).

따라서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도 이 틀에서 가닥을 잡고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과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잊지 말고 추구해야 할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첫째는 매일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이자 세계를 향한 증인의 역할, 두 번째는 여전히 복음이 미치지 않은 미전도종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www.diasporanews.kr](http://www.diasporanews.kr)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냇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 포토 갤러리



▲ 태국 치앙마이 시내 근처에 위치한 카렌 이주민 디아스포라 교회 '디베리교회' (2면)



▲ 경기도 파주에 있는 봉일천장로교회 국제부와 디자인교회 국제선교회는 아프리카 이주민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3면)



▲ 한국에 온 이주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조이하우스 (3면)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라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 사업(BAM)영역

-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북향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

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

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오류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

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

H www.isfkorea.orgsangdang.org

은평성결교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길 10

T 02-383-0071

H www.epehc.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2:30

수도권역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

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

H www.kvim.hompee.com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385-4680

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2:3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3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

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

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8:00

## 분당매일교회 살롱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후 3:30

##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경상권역

###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생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호남권역

### 갯플리장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왕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 충청권역

###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 신창비전외국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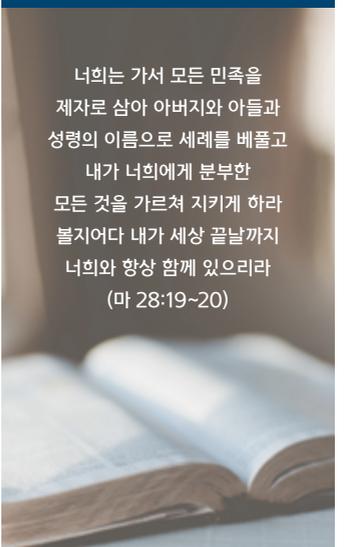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이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 디아스포라신문

발행인 문창선 목사 · 편집인 문예은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 International Forum for Migrants Mission 2023

# make

# 6.26 Mon

## 제16회 국제이주자포럼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



**CTS TV**  
기독교TV 11층

# future

# together

주관



후원

